

시민성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기주도적 교육으로 ‘두터운 민주주의’ 키운다

권진희／연세대 학부대학 교수

“학생들을 기계 속에 집어넣어 동일한 모습을 찍어내는 것 같은 교육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학생,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다. ‘두터운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에 모든 일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에서 만들어지며, 민주주의는 다양한 싸움 - 미끄러지는 기표다.”

-マイ클 애플(Michael Apple), 2017년 9월 28일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기조강연 중

정보화의 흐름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더 활성화 할 것인지, 정보 권력의 지배와 종속을 더욱 심화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는 시민들이 미디어 주권의식과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분별력,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등을 함양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세상을 읽기 위한 교육

브라질의 민중교육자이자 리터러시 교육론을 체계화한 파울로 프레이레(Paulo Freire)는 “글자를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읽는 것이다(Reading the word is reading the world)”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던 브라질 빈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전략을 키울 수 있도록 ‘문해교육 방법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세계 읽기는 글 읽기의 과정 속에 수반되는 활동’으로 보았다.

학습자가 글자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 믿었고, 이는 문해교육의 핵심이기도 했다. 그가 펼친 문해교육은 지식을 추가하는 ‘은행 적금식 교육’이 아니라 현실 인식을 통해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실천능력을 키우는 ‘임파워먼트 교육(empowerment education)’이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출발점도 다르지 않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시민 주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콘텐츠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리터러시뿐 아니라 미디어 환경, 미디어 산업의 구조, 미디어의 민주적 활용 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멀티 리터러시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¹ 미디어가 생산하는 메시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미디어 산업의 소유 및 생산구조, 유통구조 등 미디어 환경과 같은 거시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또 미디어의 이용은 수동적 차원의 이용을 넘어 미디어를 활용해 의사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네트워커’의 역량도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교육자의 역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배움의 과정 자체가 민주

적인 교육이다. 지식을 주입하는 기계적 교육이 아니라, 참여자들 스스로 미디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미디어가 전제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질문하며, 합리적 토론을 통해 주체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대안적인 행동전략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배우는 사람을 수동적 위치에 두지 않고, 다른 어떤 교육보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협력학습(co-learning)을 통해 ‘비판적인 분석’에 이르도록 안내하며, 대안적인 해석과 행동전략을 모색하도록 돋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자의 역할과 교육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자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문제 인식을 촉진하는 역할이다. 이를 위해 교육자는 학습자의 삶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교육을 기획하고 참여해야 한다. 프레이리가 민중의 삶에서 대화의 소재를 발견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했던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육자는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 기초해 학습활동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기획할 경우,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환경과 이용 행태,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중장년 세대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맥락과 그들의 주된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정은 당연시했던 것들의 전제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적 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러한 점에서 교육자는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일방적 교육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 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무언가를 가르친다기보다 참여자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시민 주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콘텐츠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리터러시뿐 아니라
미디어 환경, 미디어 산업의 구조,
미디어의 민주적 활용 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멀티 리터러시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

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검토와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적 의미를 만들어 나가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은 미리 기획 할 수도 있지만, 교육 참여자들과 함께 완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셋째, 교육자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해방적 교육은 인식의 촉진 - 비판적 성찰 (신념과 가정 검토) - 합리적·개방적 담론 - 행동화라는 요소가 역동적으로 연계돼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인식·분석·성찰(대안 모색)·행동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른바 ‘나선형’ 교육과정을 내포해 인식, 비판, 대안이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개인적·사회적 실천 전략을 모색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실천은 개인이나 그룹 단위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공적인 의사표현, 캠페인, 모니터링과 같은 미디어 감시 활동, 정책

법률 개정 활동, 공동체의 이슈와 관련된 제작 활동 등이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 배우는 기초교육

‘민주주의는 동사’라는 마이클 애플(Michael Apple)의 표현과 같이 진정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습자의 삶에서 실천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론장에 참가하고, 자신을 둘러싼 미디어 문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키우는 기초교육이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중요한 장이기도 하다.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1980년대 시청자 주권의식 교육으로 본격화된 이래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자, 시민성을 갖춘 공중 개념의 학습자상을 지향하며 발전해왔다. 아직까지 제도교육 영역에서는 시범적인 교육활동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전문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연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모으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미디어의 종류와 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지고,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생적이고 공동체적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 사이에 공통적인 ‘의미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미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은 개인유희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한승희, 1997:21).

그런 점에서 미디어 교육이 초·중·고교에서도 중요한 교육의 영역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 대상의 미디어 교육은 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기존 교과목과 결합한 형태로 또는 동아리활동, 방과 후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최근 학교 교육의 혁신적 흐름은 청소년들이 규격화된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 스스로 자신과 세계에 대해 질문하고 기존 한계에 도전하며 상상력을 발휘해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자기주도적이고 공동체적인 학습 경험을 증진하는 교육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시 이러한 교육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보다 유연하게 기획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이나 활동을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더 본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미국 하버드대학은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을 개정하면서 2019년부터 시행될 교양교육 과정의 목표를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을 키우는 것으로 설정했다(최미리, 2017). 변화하는 세계에서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삼고, 교과목을 도덕적 실천과 접목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와 기술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건설적이며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혁신의 방향은 공동체의 미래와 관련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 ■

참고문헌

- 최미리(2017), 하버드대학의 교양교육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7(6). p. 263-292.
- 한승희(1997), 성인문화의 문화담론적 분석, 사회교육학연구, 3(1). p.1-36.
- Apple M.(2017), 피스모모 창립 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전쟁의 북소리에 춤추지 않는 교육, 9.28. 서울 폐럼타워.
- Lynda J.(2004), Empowerment Education: The Link Between Media Literacy and Health Promotion: PROD Bergsma,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Oct 2004; 48-2; ProQuest Central Korea. p.152.

1 Lynda J.(2004), Empowerment Education: The Link Between Media Literacy and Health Promotion: PROD Bergsma,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Oct 2004; 48-2; ProQuest Central Korea. p.152.